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사는 손병호씨(45)는 얼마전부터 H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나간다. 일주일에 한 번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 청소도 하다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다. 그야말로 존재의 이유를 온 몸으로 느낀다.
 손씨는 IMF한파로 지난해 말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인 축구를 자진해서 명예퇴직했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적성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맞지도 않는 월급쟁이로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복잡한 심정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던 것. 명예퇴직 후 손씨는 8년전부터 취미삼아 활동해온 문화동인(구례와 시)모임에서 시와 소설을 구상하며, 나름대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사업부도, 정리해고 등으로 집을 나온 화이트칼라 홈리스족(Homeless)의 실태보도를 TV에서 보고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지 몰랐던 것이다.

경주남산 세계유산 추진

30여 불교·시민단체 4월 발기인 대회...10만명 서명운동도

문화재관리국 남산 정비예산 6억 책정
 경주 남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불교·시민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경주지역 신라문화연구원, 한국불교사회연구원 등 30여 불교·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3차 준비모임(준비위원장 김은근, 영주공고교사)을 갖고 4월에 추진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대표들은 경주 남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작업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빠른시일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3월 한달간 범국민 발기인 인선과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류 기안, 행사개최 준비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4월경 추진위가 발족되면 경주남산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와 범시민 결의대회 등을 연이어 열 계획이다. 또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은 여론확산을 위해 4월부터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요구하는 범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주 남산은 세계적인 노천 박물관으로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신청을 검토한바 있으나 문화재 훼손과 현충의 미화보 등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됐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이 올해부터 2차 문화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6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경주남산 정비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국민정부' 출범 김대중대통령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민주적 정권교체가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관련기사 20면)

여의도 불교문화센터 4월 개원

여의도에 정치 경제 언론 연예계 불자들이 함께 법회를 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엔 정법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에 가칭 '여의도 불교문화센터'를 4월초에 개원할 계획이다. 불교문화센터는 각당당의 불자회와 국회정각회, 국회 보좌관 불자회, 진경련 산하 불자경제인, 방송3사와 주요일간지 및 불교계신문

정치·경제·언론·연예계 교류의 장 조계종 법당등 마련...자문단도 구성
 사에 종사하는 불자, 연예인불자회 등 불자단체들이 단체별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 또 월1회씩 연합법회를 개최해 불자간의 유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무원 사서차장 정민스님은



PCS포교기금 소액새마을에 3백만원 첫 전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은 23일 PCS016 판매사업으로 얻어진 부다피아 포교기금 3백만원을 23일 소액새마을 원장 보각스님에게 1차로 전달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현대불교신문 PCS사업단이 관대한 PCS016의 통화료 중 5%로 조성된다.

17일 조계종 총회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정계와 언론연예계 불자들의 불심을 고양시키기로 한 것은 복수계종 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자조직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경제계 인사들의 경우 각종 정보교환과 인적교류의 공간이 마련된다는데 큰 기대를 걸고있다. 정치와 경제 언론의 제1번지인 여의도에 직접 법당을 꾸며 각계 불자들의 발걸음을 모으는 것은 총무원의 적극적인 전방의지여서 앞으로의 운영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은 대지가 새롭게 깨어나는 봄의 길목 3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 진중선사의 오도현상이며 신라불교의 초전지인 선산 모래원·도리사, 용성스님 유품전이 열리는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대학사를 찾아 스님의 대각교 운동과 독립정신을 기립니다.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한문불경 번역과 찬불가 작곡 등 대중포교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현장에서 살펴보세요. 이날 대각회에서는 참가자에게 용성스님의 대표저서 <각해일문>을 법공양 합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발자취
 독립기념관 모래원 도리사 서울대극사
 <출발> 3월 15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비> 3만5천원(점심제공·'각해일문' 법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교계 출소자 갱생생활관 건립 22면

시방세계 소쩍새 새 둥지 튄다 11면

범어사 스님들 3·1운동 공개 9면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삶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누는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부터 143호(97.9.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놓으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아트만' 같은 것은 것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에 대해 한말씀 알려 주십시오.
 답: 주인공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주인공이란 언어와 명상(名相)을 초월한 것이요,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불인 이름입니다. 처사님께서는 주인공이 일체를 한다고 믿고 맡기라니까 개별적인 '나', 개별적인 '그 무엇'을 연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 항상 나와 너, 주체와 객체로 나뉘 보던 습 때문에 둘 아닌 도리가 가물가물했지요 그래서 주인공! 하여 하나로 싸잡으라는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

현대불교신문사 뒤를 여시아문 대금 값 5000원

여시아문 '물론 바 한 척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단'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현한 것입니다.